울퉁보살 불퉁거사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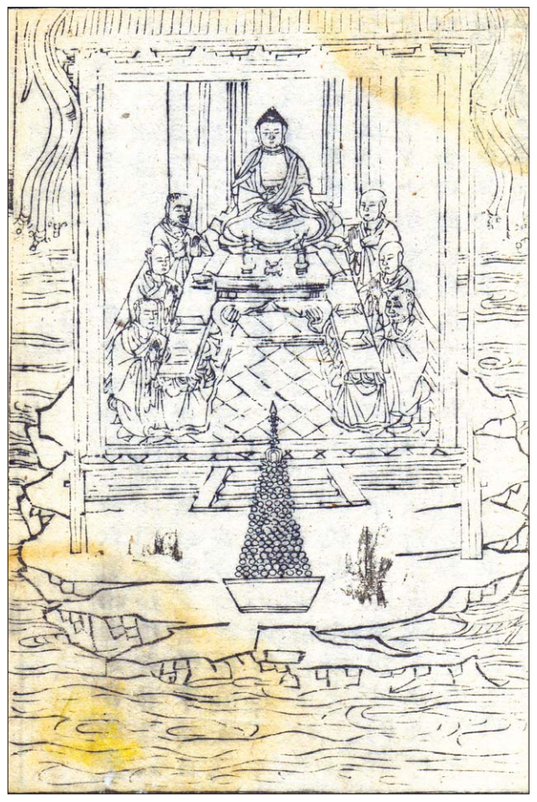
구성 : 김흥인

비단 옷과 순금을 모두 빼앗긴 사람 [백유경(百喩經)]

넓은 들판을 함께 걷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비단옷 한 벌을 도적에게 빼앗기고, 또 한 사람은 도망쳐 풀 속에 숨었다. 옷을 빼앗긴 사람이 일찍이 옷 끝에 금전 한 푼을 싸 두었기에 "금전 한 푼을 줄 테니 옷과 바꾸자"고 말했다. 옷 끝을 풀어 금을 내 보이며 "이것이 순금이니 믿어지지 않거든 풀숲에 숨은 금사(金師)에게 물어 보라"고 말했다. 도적은 금과 옷을 모두 가져갔고 어리석은 사람은 옷과 금을 모두 잃고, 남 또한 잃게 했다. 범부도 그와 같다. 도를 닦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었다가, 번뇌라는 도적에게 겁탈 당해 선법도 잃고 온갖 공덕도 잃고 만다.

옛 판화의 세계

황제의 꿈으로 수륙대재가 마련되다
수륙연기(水陸緣起)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수륙연기(水陸緣起)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양나라 황제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문으로 스님들이 처음으로 수륙재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베풀어지고 있는 수륙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양나라 천감 2년에 황제의 꿈에 신승이 나타나 일렀다. '육도사생들의 고통 받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수륙대재의 불사를 지어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구해 주지 않는가?' 황제는 이것을 여러 스님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수륙대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지(誌) 스님만이 황제에게 권유하기를 널리 경론을 찾아보면 반드시 그에 관한 인연이 있을 것이라 했다. 이에 황제는 곧 사람을 파견해 대장경을 맞아들여 중운전에 안치하고 황제가 친히 여러 날 동안 열람해 처음으로 수륙대재의 법의식에 관한 글을 지어 3년 뒤에 이를 완성했다. 이어 도량을 세워 새벽에 날이 밝을 때 몸소 그 의식문을 머리 위에 받들어 올리고 불상 앞에 무릎을 꿇어 등촉 불을 모두 끄게 하고 서원의 말을 발원했다. '이와 같이 서원문을 옮기니 이글의 이치는 성인 범부의 소원에 일치한 글이라 절을 하고 일어나면 등촉의 불들을 스스로 밝히고 기본 의식을 잘 모를 경우에는 등불이 모든 곳을 어둡게 하소서'라는 말을 마치고 한 번 예불하니 등촉 불이 모두 밝아졌고 두 번째 예불하니 궁전이 진동했고 세 번째 예불하니 하늘에서 보배 꽃이 비 오듯 했다. 천감 4년 2월 15일 금산사에 자리 잡고 모든 스님들에게 명해 의식에 근거한 수륙대재를 마련하고 예식을 닦으니 사흘 밤낮 동안 재를 올려 두루 중생들을 제도했고, 황제가 몸소 법석에 참석해 사문 승우 율사에게 조서를 내려 글을 베풀게 하니 큰 감응이 나타났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황제의 현몽을 토대로 황제 자신이 두루 대장경을 섭렵해 수륙재 의식문을 만들고 많은 스님들에게 의식을 베풀어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통해, 수륙재가 베풀어지게 된 인연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하는 보살행이 황제를 비롯한 옛 불자들의 불심을 통해 나타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봉정암

설악 봉정암이다
한 바가지 샘물 떠 마셨다

저 아래를 슴벅 내려다 보았다

백팔번뇌야

백팔번뇌야
너희들이 나를 살렸구나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고은/<유심> 2009년 1 · 2월호에서